

# 이 도량이 흥하면 나라가 흥하고 법계가 흥하리라

## 17 사자울음소리 들리는 법흥사

“세상은 모두 혼탁하고 시대는 오랫동안 혼미하므로 반딧불로는 능히 한밤의 어둠을 제거할 수 없고, 아교로서 능히 황하의 탁류를 막을 수 없다.”

구산 선문 가운데 하나인 사자산문을 영 절조절중(靈曉折中 826-900) 선사 국사로 모시겠다는 진성여왕의 뜻을 사양하며 한 말씀입니다. 반딧불로는 한밤의 어둠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제 공무니에서 나오는 빛의 한계를 모르고 날뛰는 불랑배가 많은 시절입니다. 스스로의 값을 알고 사양하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아야 나라가 평온 할 텐데 세속적 욕망의 불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위대합니다. 가지려는 공부가 아니라 버리는 공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이루어지는 대로 따르려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수행자들은 위대한 것입니다. 절중 선사의 삶 또한 그랬습니다. 절중 선사는 이승의 인연을 마무리하며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삼계는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고, 만연(萬緣)은 함께 고요한 것이다. 나는 이제 떠나려하니 너희들은 힘써 정진하여 선문을 수호하고 종지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 곧 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니라.”

서기 900년 3월 9일의 이 한 말씀이 헛되지 않은 지금 영월 법흥사에 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법흥사는 철감도윤(798-868)의 법을 이은 절조절중 선사가 연 사자산문 흥녕선원을 이은 고찰입니다. 자장율사가 세운 다섯 곳의 적멸보궁 가운데 하나인 법흥사의 창건주는 자장 율사이고 중창주는 절중 선사입니다. 그러나 창건(643년) 때나 중창 때의 광휘는 이내 견고 오랜 시간 세간의 발길을 멀리합니다. 현강왕의 보살핌에 힘입어 산문의 흥성을 구가하던 흥녕선원이 공예에 의해 파괴된 이래 역사의 부침에서 온전하게 모습을 보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흥사는 새로운 도량으로 면모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주지 도완 스님이 10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종각중창불사가 하나하나 결실을 맺으며 도량의 위풍이 당당해 지고 있습니다. 흥녕선원이나 법흥사나 ‘흥(興)’자를 계승하고 있는 절을 주목할 만합니다. 도량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민중생을 자비로 섬수하여 무명번뇌를 씻어주고 희구하는 비원을 이루게 하며 심란한 마음에 평온을 드리워 주는 각종 포교프로그램들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삼계는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고, 만연(萬緣)은 함께 고요한 것’이라는 절중 선사의 유언이 오늘날 적멸보궁의 성스러운 기운 속에서 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흥사에는 부도발이 따로 없습니다. 숨겨져 있던 산중의 천년고찰에 병화(兵禍)가 그치지 않아 오묘한



1 절조절중 서사의 부도와 탑비 2 소현 스님 사비 3 법흥사 적멸보궁석굴과 부도 4 순천 금둔사3층석탑

선사의 수행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 수습된 사리들을 곧바로 부도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다비를 한 곳이 해안에 있는 절이라 큰스님의 업적을 기릴만한 탑과 비를 세우기에 부적절했던 것입니다. 이때 흥녕선원에 피폐하여 부도를 모실만한 여건이 안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문에는 “그리하여 사리를 모시고 동림(桐林)으로 가서 천우(天祐) 3년(907)에 높이 탑을 세우고 그 금골(金骨)을 안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사의 입적 7년이 지나서야 부도에 사리를 모신 것인데 그나마 선사와 인연이 없는 곳이었습니. 때문에 후에 흥녕선원으로 다시 금골을 모시고 와 부도를 세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법흥사 부도의 양식을 분석하여 제작연대를 11세기로 보는 데는 이런 정황이 내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림은 어디일까요? 여암 최인선 선생은 지금의 순천 낙안에 있는 금둔사를 옛 동림사로 보았습니다. 비문에 나오는 ‘分領’이라는 지명이 낙안의 옛 이름이고, 이 지역에 절중 선사가 살던 때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절은 금둔사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금둔사는 송림사란 이름으로 구전되어 왔고 낙안면 신기리에는 동림이라는 마을도 있다고 합니다. 비문에 나오는 ‘고기석분(高起石墳)’이란 말도 ‘높이 석분을 세워’ 금골을 안치했다는 기록으로 해석 됩니다. 지금 금둔사에는 통일신라말기에 세운 것으로 보이는 3층석탑이 있고 옆에 석불도 세워져 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옳다면, 금둔사3층석탑이 절중 선사의 사리를 모셨던 탑이라면 석탑형태의 부도로는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학계에서 더 연구가 진전된다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갑사 대적전 앞의 ‘갑사부도’ 역시 절중선사의 것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근거 역시 비문에서 비롯됩니다. 비문에 따르면 절중 선사는 말년에 연거푸 왕들이 승하하고 나라가 혼란에 빠져 문도 몇 명과 함께 스승의 탑에 참배하고자 쌍봉사로 향했을

## 철감도윤의 선맥 이은 절중 선사 사자산문 개산 순천 금둔사3층석탑 · 공주 갑사부도 절중 선사 것일 가능성 제기 10년 중창불사로 사격일신 ... 보궁 참배객 줄이어

시간의 역사를 지키지 못했으니 부도발이라는 공간적 흔적 또한 없을 수밖에 없습니.

극락전 우측 뒤편에 절중 선사의 부도와 탑비가 우뚝하고 이름 모를 스님의 석종 하나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적멸보궁 석실 앞에 부도하나가 아담하지만 당찬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절중선사의 부도(강원도유형문화재 제72호)를 쓰다듬어 봅니다. 화강석으로 조성된 부도는 팔각원당형이며 비교적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육개석의 귀퉁이 한쪽 떨어져 나간 것이 안타깝습니다. 부도 옆에 흰칠한 키로 서 있는 징호대사보인탑비(보물 제612호)는 944년(고려 예종1년)에 세워졌습니다. 높이가 446cm나 됩니다. 귀부는 의젓한 거북의 형상에 여의주를 문 용두입니다. 이수는 화려하지 않지만 위엄과 균형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귀의 용들이

물고 있는 여의주는 윤5월을 맞아 순례길에 오른 불자들의 가슴에 송고한 가르침을 전해주려는 듯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법흥사는 절중선사가 입적한 곳은 아닙니다. 탑비에 의하면, 선사는 중국 유학길에 올랐다가 당나라 근해에서 풍랑을 만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귀국해 서해의 당성(唐城) 평진(平津)으로 돌아옵니다. 당성군은 지금의 남양지역인데, 선사는 어느 재가자의 집에서 며칠 머물다가 은강선원(銀江禪院)에 가서 주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진성여왕의 국사 초빙을 거절하고 임종을 맞은 것입니다.

문도들은 절중 선사가 입적하자 법체를 석실에 안치했다가 인도의 장례법에 따라 다비하여 사리를 수습합니다. 이때 1000과의 사리를 수습했다고 하니

니다. 그 남행길에 공주에 들러 지역 유지들의 초빙으로 머문 일이 있다는 대목에 천착한 의견입니다. 또 갑사부도의 조성 양식이 쌍봉사 철감 선사의 부도와 많이 닮아 있다는 점과 이 부도가 원래 있던 곳이 계룡산 중사자암터란 점 등을 종합해 내 놓은 의견입니다. 이 역시 좀 더 연구가 진행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적멸보궁은 고요합니다. 순례객들이 수시로 드나들지만 시끄럽지 않습니다. 추녀 밑에 돛자리를 깔고 참선 삼매에 든 불지도 있고 땀을 닦아내며 전각을 도는 불자들도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일행을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합니다. 적멸의 공간은 마무리 큰 소리로 조용합니다.

그 고요 속에 우뚝 서 있는 부도(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3호)는 주인을 알 수 없습니다. 팔각원당형의 양식을 계승했고 문양도 안정적이고 화려합니다. 모양새도 전체적인 균형감이 살아있는데 이 역시 11세기 무렵에 모셔진 것으로 보입니다.

법흥사 경내는 지난 10년간의 불사로 단정합니다. 이제 그 불사의 원력이 흥녕선원의 기상이 서린 선원터에 오늘의 선기를 발현시킬 새로운 ‘흥녕선원’으로 출현할 것을 믿습니다.

법흥사 경내를 둘러보고 나오는 길에 좌측의 풀더미 속에 서 있는 사비 하나를 만납니다.

소현 스님을 가리는 사비입니다. 소현 스님은 법흥사 주지를 맡아 중창불사를 발원하고 화주하기 위해 전국을 다녔습니다. 1981년 8월 무렵던 어느 날, 소현 스님은 경주 고속도로 틀게이트에서 교통사고로 입적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스님의 가방에서 화주한 지폐들이 바람에 날렸는데, 사람들은 돈을 줌이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중생들의 그 탐욕스런 몸짓 앞에서 스님은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결국 사관(死關)을 넘어야 했다의 뒷얘기도 있습니다.

짧은 승려 시인으로 조계종 총무원에서 소임도 맡으며 의욕적으로 살았던 소현 스님의 짧은 생애와 시력(詩歷)을 기리기 위해 청화 정휴 진관 성우 현담 정우 청원 원명 스님 등이 세운 사비는 길가에 있지만 눈길을 주는 사람이 드뭅니다. ‘청자와 함께’라는 시를 읽던가 새기고 아랫단에 소현 스님을 가리는 도반들의 마음을 새겼습니다. 어느새 마멸 파손되고 있는 비와 스님의 시 보다 도반들의 마음을 담은 글이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어느 여름날 산꽃처럼 이운 한 사문의 영상을 가슴에 새기며 평소 정을 나누던 도반들이 뜻을 모아 이 비를 세웠다.

소현 스님의 사비도 하나의 부도입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 부처님 일천 팔십분의 이름과 복장으로 사찰경제 중흥발원

**부 상감청자투각佛 법륜대(운장대) 완결봉안 해**

동참접수 : 2009년 5월~ 9월 5일 | 정안식 : 2009년 9월 6일(일) 오전 10시 50분  
도동산 성불사 ☎ 954-9848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너무나 큰 관심과 성원을 주셨습니다.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달마시 청오 합장=

실용신안특허허가기술

복장용 소경책

불사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와 중생불사의 사원을 이루소서

□ 제품명 : 순금천불봉안법륜대  
□ 재 질 :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 이 : 110cm  
□ 원통폭 : 45cm  
□ 밑받침폭 : 30cm  
□ 무 게 : 25kg

### “업장소멸 법륜대 복장 행사 개최!”

지금 법당 탁자위에 한분 한분 명단이 적힌 경책이 쌓여가는 이유가 있다. 부처님이 새겨져 황금빛으로 빛나는 초소형 경책을 법륜대에 복장하기 위해서다. 집안을 위한 금강경과 건강발원으로 약사경, 수현생을 위한 반야심경에 이름을 붙여 복장하는 독특함이 있다고 한다.

한분 한분 제각기 다른 소원을 가지고 돌릴 때마다 공덕을 쌓느라 법당에 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양쪽 법륜대의 1080분 명단이 돌아감은 물론 이름 수대로 경책을 할 수 있어 이 시대 포교와 사찰경제 지킴이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혜택)

1. 순금 개금비만 도착 시 지불하시(봉안시) 나머지는 연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는 혜택을 드립니다.
2. 한분 한분 명단 및 주소를 적을 수 있는 카드형 권선문을 드립니다.
3.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춤형 소법문형, 보급형, 특대복장봉안작품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선택하시는 분에게 특별한 선물과 경책 견본을 드립니다.

**한분 한분 수작업으로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추어 직접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 소멸법륜대를 가장 평안하게 봉안 할 수 있는 절묘한 기회입니다. 양쪽 법륜대 1080분의 명단과 복장 불사로(일억원) 사찰경제 기반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